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아니하리라” 캐나다, 교내 집단 괴롭힘 10대 자살 심각

### 각 주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는 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6:35)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자살하여 캐나다 각 주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달 1일 글로브 앤 메일지(紙)에 따르면 퀘벡의 마조리 레이몬드(15) 양이 교내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지난 달 28일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조리는 그 동안 교내 현장과 페이스북에서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이 세상을 떠나기 힘들지만 어딘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그의 모친이 밝혔다. 마조리 가족은 얼마 전 학교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측이 일부 학생에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마조리는 “더 이상 못견디겠다”고 괴로워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그의 모친은 “아무리 호소해도 학교 당국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학교측은 10대 여학생들 간 다툼 정도로 다루었지만, 결국 그 이상의 상황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마조리의 자살은 최근 전국적으로 10대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글로

브지는 전했다.

지난 달에는 오타와의 10대 동성애자 소년 1명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9월 토론토에서는 11세 소년이 급우의 가학적 괴롭힘을 당한 뒤 자살했다. 또 지난 1월 노바스코샤에서도 가수를 꿈꾸던 15세 소녀가 수 개월에 걸친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나다의 10대 자살은 198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07년 모두 218건으로 자동차 사고에 이어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글로브지는 말했다. 교내 집단 괴롭힘의 사례도 심각해 온타리오주의 경우 7~12학년 학생 3명 중 한 명 꼴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조리의 자살을 계기로 각 주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는 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장 샤프레스트 퀘벡 주 총리는 마조리의 자살을 “끔찍한 비극”이라고 애도하며 지난 2008년 도입된 학교 폭력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온타리오주 당국은 교내 학우에게 증오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학교 현장에서 가학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퇴학조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앨버타 주 에드먼턴 시 당국도 같은 날 집단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글로브지는 전했다(출처:연합뉴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29:25)

이 땅의 모든 위로자 되시며 생명이신 주님,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인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안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들을 두려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까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 죽을 사람이 아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인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단의 울무에 걸리는 자가 아닌 여호와의 의지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목말라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

음을 취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주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 INSIDE



▶ 십자가만 자랑하며 3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 기획 4면

- 다시복음앞에 프로그램 해설
- 다시복음앞에 집회 의의

▶ 기획 8면

다시복음앞에 주제가 '다시복음앞에'

##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특집호 3,4,5,7,8면



김용의 선교사 컬럼

# “사랑이 결론된 사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1,22)”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마음에 책망 받을 일과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체질과 맞았고 우리와 친했고 우리의 야망과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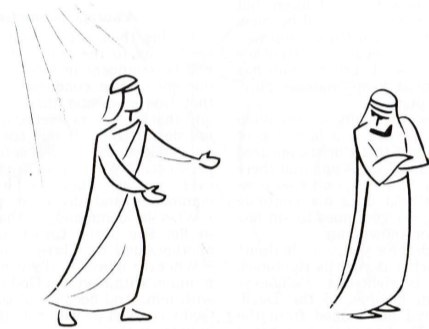
둘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즉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너무 엄중해서 우리가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실제라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봐도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도, 또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세상적 가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룩한 부름을 받고보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나의 죄 된 습성을 보면 위축이 되고 ‘내가 그렇지’하면서 마음에 책망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성품이며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기도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이 열



쇠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비결, 즉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결론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 생명의 떡

### ‘박해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터키/에르칸 센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6:19,20**

에르칸은 동료죄수들에 둘러싸여 음침하고 킁킁한 감방에 앉아 있었다.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에게 책을 공급함으로써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에르칸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조를 청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에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게 진심이 아니었니?”

“그건 진심이었고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르칸은 누우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심령에서 우러나온 말로 아뢰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세 시간씩 감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 새로운 전도의 장(場)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렇게 한 달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몇몇 증인들이 경찰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진술서에서 서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 판사가 그의 행위에서 어떤 범죄의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풀려났다.

그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선한 증인들을 얻게 되었다. 그가 풀려난 뒤, 감옥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죄수들이 교회를 찾아와 감옥에서조차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물은 것이다. 에르칸은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종종 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고난 받을 생각을 눈곱만큼도 없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 소망은 박해를 각오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특정한 행사에서 제외되었을 때 분개한다. 무시당하고 속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기도가 우리의 시야를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게 될 것이며, 소망을 품게 될 것이며, 아픔의 한가운데서도 약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박해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판)

##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지난 11월 7개 지역 순회집회가 열리던 기간, 전주순회집회 장소였던 전주온누리교회 앞마당에 들어서자 조형물 하나가 한눈에 들어왔다. 구약전서 이사야 55장을 펼쳐놓은 모습의 돌조각. 어린 꼬마아이가 커다란 성경책 모습이 신기한 듯 달려가 말씀 위로 펼쳐 뛰어오른다.

목마른 자들을 향해 누구든 값없이 나아와 마시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들리는 듯 돌 위에 새겨져있다.

2011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를 맞이하며, 어린 아이가 말씀 위에 온 몸을 의지하듯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기대해본다. 의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1,3)

- 사진 : WMM / 글 : 김승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김관영 목사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요한복음 처음과 끝은 주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을 뜻한다. ‘넌 나만 따르라’ 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표현을 수미쌍방구조라고 한다. 이것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함으로서 메시지의 뜻을 확대시키는 기법이다. 현재 몸담고 있는 문화행동 아트리에서는 연극 공연을 만들 때 이러한 수미쌍방구조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인상적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요한복음 중에서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역사상 자기만 따르라 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떠오른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이다. 그도 나만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나만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이다.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은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왜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을 통해 밝혀 놓으셨다.

은 우주 만물 가운데 “아이 엠(I am)” 즉 “나다” 라고 독립적인 소개가 가능한 존재가 있을까? 없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소개할 수 없다. 반드시 ‘어디에서’ 즉 출처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누구다” 라는 독립적 소개가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었다. 유대인들의 손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것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Ego Ami) 즉 ‘나는 나다.’ 요한복음 중간 중간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에고에이미’ 표현을 7번 반복해서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6장 25, 48, 51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8장 12절, 9장 5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10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곧이어 10장 11-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다.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7가지 표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뮤지컬 ‘가스펠’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뭐 먹고 살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주님은 이 질문에 요한복음으로 답하시는 형태로 이어진다. 사울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이다.

이번 집회는 오직십자가이다.

이러한 동일한 의도가 이번 ‘다시복음앞에’ 집회 모든 순서마다 녹아져있다. 이번 3박 4일 집회가 끝나고 나면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을 주러왔노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드러난다. “너의 생명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얻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자아 생명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될 예수 생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결론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나의 죄 된 자아 생명과 예수 생명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죄 된 자아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로부터 즉 십자가로부터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나는 비밀이다.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 이름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오직 십자가이다.

요한복음 상에서 감히 예수님 외에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무대가 될 것이며 새 창조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 빛을 보게 되는, 그리고 다시 세상에게 버림받는 인물. 그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주님께서 등장시켜 주신 날 때부터 맹인 된 사

람이다. 평생 눈멀고 구걸하던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에고에이미’라고 말했다. ‘나다.’ 부모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존재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존재

지금 이 시대에 없는 능력까지 있는 것처럼 꾸며 이력서를 써야하는 때에 “정말 예수면 다야?” “정말 예수면 다인 사람 있느냐”고 묻는 세상 앞에서 “나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로 나와 당신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번 집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실 것을 기대한다. 죄 덩어리인 우리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오직 복음이 영화로워지길 기도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이번 3박 4일 집회에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며 영원한 복음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다시복음앞에 섬김이 모임 메시지 정리)

## 선교브리핑

### 美 대학, 릴레이 성경읽기 '눈길'



미국 플로리다 주 서부 팜비치 애틀랜틱 대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지는 중요성과 캠퍼스에서의 영적 부흥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지난 11월 중순부터 캠퍼스에서 큰 소리로 신약전서를 읽는 ‘성경읽기 마라톤’ 행사를 진행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다. 약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새벽 6시부터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원형 대강당인 ‘린커 토론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30분에서 1시간씩 릴레이로 성경 전체를 대중들 앞에서 육성으로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 창립위원들은 성경에 대해 자유롭게 논쟁하는 기독교공동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 베트남 성도들, 병원에서 치료 거부돼



베트남의 마이 독 지역 아가페 침례교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예배 중 강단에 의해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나 인근 병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여성 전도자 응구엔 티 란은 두 군데의 골반 뼈가 부러지고 심한 장기 손상을 입어 긴급수술을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녀를 포함한 3명의 크리스찬 모두 병원들로부터 치료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구엔 콩 탄 담임목사는 박해를 당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원한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기를 기도한다”며 “여러분이 흘린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임을 기억하라.” 고 말했다.

## 1면에 이어 - 캐나다는 어떤 나라인가?

Canada



- 면적 997만km<sup>2</sup> (100배)
- 인구 3천388만 (0.7배)
- 도시화 80.6%
- 종족 유럽태생 80% 아시아인 11.7% 토착종족 2.9% 아프리카계 카리브인 1.6% 라틴아메리카인 1.5% 아프리카인 1.1% 기타 1.2%
- 종교 기독교 72% 무종교 19.1% 이슬람교 2.9% 불교 1.1% 유대교 1.1% 힌두교 1%
- \*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 다원주의가 대세가 된 나라



기독교적 가치관은 사라지고 급격한 세속화와 다원주의가 사회의 모든 기준을 대신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 기독교회는 소외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교단은 교인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위태로운 상태이다.

교회는 성경적 뿌리를 잃었고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도 상실했다.

게다가 다원주의와 세속주의를 받아들여 기독교의 기초를 침식시켰다. 캐나다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하다.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벅서스CROSS>

기획 - 다시복음앞에 프로그램 해설

# “다시복음앞에 ...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는 시간”

## 4일간 ... 믿음의 증인들의 풍성한 메시지와 삶의 고백이 펼쳐진다.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3박4일간 다양한 믿음의 증인들의 메시지와 삶의 고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낸 신 얼굴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재구성됐다. 이번 집회 기간의 순서와 구성내용, 집회의 의의 등을 일정별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 입소 첫날 그문을 열다

오후 2시. 숙박자 등 모든 참가자들이 등록절차와 저녁식사 이후 주집회장인 본당에 모인다. 영상과 드라마를 통해 이번 집회의 개회가 선포된다. 연합 예배팀 '리턴'(머스트위십, POP위십, 성령의사람들, 디사이플스, 인더시티)의 인도로 집회의 문이 열린다. 이어 '오직 그 삶과 피로(Return to the Bread)'라는 제목의 매일 저녁집회시간에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함께 풀어가는 십자가로의 초대 메시지를 듣는다. 메시지 이후 첫날부터 사흘 동안 다시 복음 앞에선 주의 백성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회로 하루 일과가 종료된다.

### 둘째~넷째 날 빛으로 목자 품으로

평생 외길을 걸으며 광야의 소리로 오직 복음을 외쳐온 복음전도자들이 들려주는 새벽성찬 시간에 '다시 그 빛으로(Return to the Light)' 나아간다. 메신저로는 송천호 목사(미국 월드비전), 송신호 목사(한국 제자훈련원)와 김용의 선교사가 맡는다. 아침 식사 이후 '다시 그 나무 아래(Return to the Tree)'에 서서 역사 위에 우뚝 선 역사 속의 증인들이 일궈 낸 믿음의 큰 걸음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된 역사적 증인들을 만난다. 이 시간은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대표),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회 국제동원본부), 정재현 집사(천마USA 대표)가 참여한다. 이어서 지금도 열방 각 곳에서 주님과 함

께 십자가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증인들이 시온의 대로 '다시 그 길 위에(Return to the Way)' 선다. 권영조 목사(사이판 복음교회), 안정규 선교사(K국 선교사) 백부장 선교사(O 국)가 맡는다. 오후 시간.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세 명의 신학자들이 진리의 빛을 명쾌하게 밝히는 '다시 그 진리 안에(Return to the Truth)' 서는 시간이다. 유영기 교수(복음기독교신학연구소) 류응렬 교수(총신신학대학원) 박영철 교수(침례교신학대학원)가 참여한다. 선한목자이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종들의 목숨 건 목회 현장 '다시 그 목자 품으로(Return to the Shepherd)' 가는 시간이다.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

음교회), 유기성 목사가 자리한다.

### 마지막 날 저녁 파송식 '왕의 군대로'

저녁 식사 이후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전달자 문화행동 아트리아의 노래와 춤으로 엮어진 뮤지컬 '가스펠'이 '다시 삶의 무대 위로(Return to the Life)' 시간을 통해 보이는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복음 앞에 선다. 마지막 시간에 이미 승리한 왕의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이 항오를 갖추고 대오를 정비해 복음기동맹군으로 일어서는 대행진 '이제 왕의 군대로(Raise the banner of the King)' 행진하며 파송식을 갖는다.

### 다시복음앞에 집회 의의

## 복음의 승전·작전보고서와 모병통지서를 받는 시간

###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한 사람에게 ... "돌아오라!" 결단촉구 복음의 증인에게 ... '정상적인 삶'에 대한 격려와 위로

"이번 집회는 복음의 승전보고서 앞에서 주님의 군사들이 작전보고서와 모병통지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준비위원회가 밝힌 이번 집회 성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집회는 두 유형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선포된다.

한 유형은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또 한 유형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영광의 빛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향해 이 집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돌아오라!" 그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할 수 밖에 없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은혜 입을 고맙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집회기간 내내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격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결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동지들이 동맹군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전쟁이 만만치 않음도 직감하게 될 것이다.

작전보고서의 또 다른 관점은 이번 집회가 복음의 기초를 다시 닦자는 성경공부 기초과

정으로의 초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땅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도 견재하다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모임은 더욱 아니다.

목적은 분명하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재천명하고자한다. 상황 앞에서 오금이 저려올 때마다 전능으로 드러났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실제임을 선포하고자 한다. 상황에 질려 있어서 버림 받는다 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포효하는 사자로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적 포기는 절대충을 가져온다. 한국교회에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진짜 위기라면, 그것은 진짜 기회라는 것이다.

다시복음앞에, 이 집회에서 우리는 당당히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보고를 듣게 될 것이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명쾌한 작전보고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길 수 밖에 없는 신나는 전쟁에 용사를 부르는 모병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사단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 우리는 최근 한 선교학자의 했다는 발언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짧은 12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서구교회가 경험한 것을 모두 경험했다. 복음의 확장, 고난, 부흥, 선교적 열정 등 모두를 경험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다른 종교개혁이다"

###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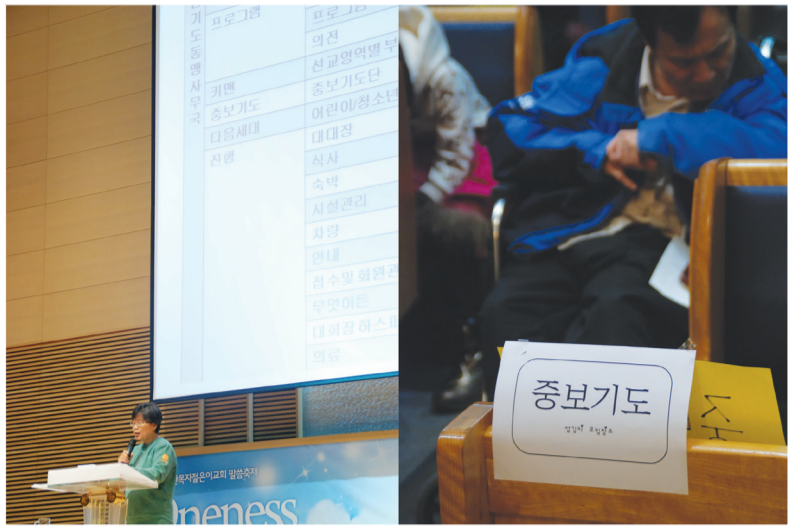
13일(화)	14일(수)	15일(목)	16일(금)
	6:00	다시 그 빛으로 / Return to the Light	
		김용의 선교사	송천호 목사 / 송신호 목사
	7:30	아침식사	
	9:00	예배 리턴	
	9:40	다시 그 나무 아래 / Return to the Tree	
		유병국 선교사	정재현 집사 / 이동휘 목사
	10:40	다시 그 길 위에 / Return to the Way	
		권영조 목사	안정규 선교사 / 백부장 선교사
	12:30	점심식사	
2:00	2:00	다시 그 진리 안에 / Return to the Truth	
		유영기 교수	박영철 교수 / 류응렬 교수
4:00	3:30	다시 그 목자 품으로 / Return to the Shepherd	
		박보영 목사	김성로 목사 / 유기성 목사
6:00	5:00	저녁식사	5:00 저녁식사
	6:30	예배 리턴	
			다시 삶의 무대 위로 / Return to the Life 뮤지컬<가스펠>
	7:30	오직 그 삶과 피로 / Return to the Bread	
		유기성 목사	김용의 선교사
	9:30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 Only for his Kingdom & his righteousness - 기도회	
	10:00		10:00
			이제 왕의 군대로 / Raise up the banner of the King <파송식>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이모저모

# “다시복음앞에 마지막 점검”

### 숙소와 수천명분의 식사 오병이어 ... 증인된 강사 확정 등 기도응답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지난달 2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번 집회에 섬김으로 신청한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김이모임을 갖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은 참가신청자가 4천명을 넘어서면서 선착순마감 원칙에 따라, 접수 중단을 발표했다. 또 집회장 안팎에 설치할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과 참석자들이 집회기간 중의 생활수칙과 일정등을 담은 핸드북 등 인쇄물 준비 등 마지막 점검에 돌입했다.



조건없는 섬김의 섬김이= 이번 집회 섬김이들은 대부분 조건 없이 섬기기로 결정하며 신청했다. 진행본부인 사무국은 이들을 예배, 차량, 중보기도, 방송, 홍보, 의전, 주방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 섬김이가 배치해, 집회를 섬기게 할 계획이다. 어떤 영역의 섬김이는 집회장에 거의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을 최선으로 알고 기쁨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섬김과 나눔 = 헌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집회는 출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한결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참가신청을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도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웹디자인과 개발자의 참여로 가능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개인과 단체들이 이 집회를

위해 아낌없이 재정과 물품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상하게 올해 깎두기를 많이 담겼다”는 전라도 신안군의 한 전도사님은 집에서 직접 담근 깎두기와 텃밭에서 키운 고추 등을 보냈다. 이번 집회 숙박을 위해 셔틀버스와 장소를 내어놓은 천보산민족기도원측은 참가자들을 위한 매끼마다 2천명분의 밥을 지어 차량으로 실어나르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교회들은 지방에서는 오게 될 참석자들을 위해 교회를 숙소로 개방하고, 비타민 등 의약품을 제공하고, 참석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내어놓고 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주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들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말씀이 실제 되는 현장이다. 기도응답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중보자들의 기도에 대해,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어떤 분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지 기도하면서 허락된 만남을 통해 강사명단표의 빈 자리가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졌다. 각자가 다른 삶과 사역의 현장에 있었지만,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실제 되도록 국내외에서 준비된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 후속 비자 발급이 어려웠던 분, 중첩된 일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참석이 불가능했던 분, 건강상 도저히 대중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속속 기쁨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밖에 숙소와 교통편, 식사문제 등 하나같이 막막했던 영역들이 꼬인 실타래 풀리듯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한다.

연합집회 일일 방문자 가이드

## “다시복음앞에 ...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는 시간”

### 데스크에서 접수한 뒤 중계집회장에서 참관 ... 식사는 개별적으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참석을 사전에 접수하지 못한 일일 방문자들도 이번 집회에 참관할 수 있게 됐다.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은 방문자들에게 주집회장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대형 스크린 등을 통해 중계되는 ‘중계집회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 중계집회장도 접수대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일일 방문자는 먼저 선한목자교회 1층 접수데스크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후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받아 가슴에 붙여야 행사장 출입이 가능하다. 접수 후 섬김이의 안내

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방문자는 따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집회가 끝나면 선한목자교회 주변 음식점들을 이용하면 된다. 중계집회장은 특히 유동인원이 많다. 일일 참석자들은 개인 소지품을 잘 챙겨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동맹 사무국은 그러나 12월초 현재 방문 문의 역시 적지 않아 방문자의 접수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다시복음앞에 중보기도팀 섬김이 유혜진 선교사(기도24365본부)

## 잠잘 권리를 포기하고 중보기도에 전념기로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을 하반기 다시복음앞에 순회집회가 시작되던 2011년 9월 중보기도팀이 구성됐다. 릴레이 금식기도로 시작된 중보기도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은 올 하반기 동안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중보기도팀을 섬기고 있는 유혜진 선교사(기도24365본부)와 만나, 그동안의 과정을 들었다.

-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말씀해주세요.  
“먼저 9월 한달간 기도24365 홈페이지를 통해 연합집회 기도팀 중보자를 모집했어요. 약 70여명의 기도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때부터 기도정보가 이메일로 기도자들에게 배포되며 기도가 시작되었죠. 개인 골방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10일 단위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10월 말에는 처음으로 중보기도자들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마음교회(서준길 목사)에 모여 합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모임을 통해 중보기도자들은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과 역할을 들을 수 있었고, 부르심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11월부터 중보기도단은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했어요.”  
- 그동안 중보기도단을 섬기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신지요.  
“정말 모든 것이 기도제목이었어요. 순회복음집회부터, 매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시간이었어요. 결정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나 장소에 관한 건, 강사님 섭외 및 해외에서 오시는데 필요한 비자 등 각종 현안 과제를 들으며 주님 앞에 엎어질 수 밖에 없었어요. 일련의 행사 때마다 필요한 재정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심을 보며 감사했어요. 가장 다급했던 기억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해주신 중동 A국 선교사님으로부터 계시던 건물이 폭격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순간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신이 확 들더군요. 당시 순회사역으로 분주한 마음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게 됐죠. 이번 집회 기간에도 매시간 모든 상황속에서 일하실 주님이 기대되요.”

- 집회기간동안 중보기도팀은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아침시간에 말씀기도, 저녁시간에는 말씀과 함께 기도정보를 보고 기도할 계획이에요. 중보기도실에는 영역별, 요일별, 주제흐름별, 긴급기도, 복음기도동맹선언문과 행동강령에 따른 기도정보가 비치되어 기도를 하고요. 밤에는 조를 짜서 연쇄 기도가 이어져요. 모두들 잠잘 권리를 포기하고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어요. 집회장까지 조를 정해 기도가 이어지면서 기도하다 남는 시간에 식사하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군요.”  
- 끝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나눠주세요.  
“최근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절망을 넘어 순교의 영광으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모든 영역과 세대 가운데 순교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일어서실 것을 기대합니다.”

## 기도의 삶

## “열방을 품는 기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혼자서 30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한 선교단체의 선교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같은 조원 자매들과 팀을 이뤄 느헤미야52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엔 그저 막막한 생각만

기도에 참여하자는 조장님의 제안을 들었을 때, 함께한다고는 하지만 24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뻔 변명거리를 찾느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정된 기도일자에 바쁘다는 핑계달 거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스케줄을 주님이 조절 해주셨습니다.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도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24시간을 완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저 막막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단지 하루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각, 기대에 찬 자매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담소를 나누고 다과를 즐기면서 나 역시 기대는 되지만 종일 과제로 피곤에 지치기도 하고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나간다는데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자 다같이 모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기도정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내 지식적으

로 말씀을 캐보려고 했고 내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 읽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강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하거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말씀은 내 안에 중심을 비춰주고 있었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 자매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면서 또 한번 나를 비추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서 24시간 중 12시간씩 감당하는 이 기도가 처음에는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세 시간씩 주어진 시간을 완수해갈 때 어찌보면 이리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곳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도 섬겨주시고, 배고프거나 춥거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기도가 끝나자 요동치게 하는 상황

기도를 끝내고 온 후에 갑작스레 마음을 세차게 흔들여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잠할까 했던 부모님의 염려 섞인 다그침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너무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별스럽게 이러는 것이 아닌가 탈격 겁이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흔들렸던 탓에 다음 기도시간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에도 맘 놓고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던 자매들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드릴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52기도를 아주 특별한 무엇으로 생각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는 헛된 중심을 비춰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 더욱 더 주님을 보게 하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사모할 때 열방 땅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게 하시고 애독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더욱 더 진리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기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원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이영실

### 2011년 12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 교회

▷ 51주차 (12월19-24일)  
김포전원교회 - 느헤미야 지정숙 권사  
동산의샘교회 - 느헤미야 김시환 목사

▷ 52주차 (12월26일-31일)  
대학로기다리는예배&충신감리교회 - 느헤미야 김관영 목사  
성산감리교회 - 느헤미야 안선의 목사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서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 기도의 능력

##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 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의 이런 추세는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러한 중차대한 진리는 이 시대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 진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태양이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

## 「2012느헤미야52기도」 참가 신청받습니다!

한 회가 한 주간씩 52주 연속, 연쇄, 연합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느헤미야52기도」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서는 일은 한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 집니다. 2012년 기도의 등불을 밝힐 느헤미야(기도주관자)의 순종을 기대합니다.

- 신청 자격 : 교회나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교회, 단체 대표의 동의가 필요)
- 1차 접수기간 : 2011년 12월말(순회기도팀 배정을 위해 필요)

2012느헤미야52기도를 앞두고 '다섯번째 느헤미야52기도정보'가 출간됩니다(2012년 1월말 예정).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권 구입시 6,000원. 6권 전체 구입시 30,000원(각권 5,000원으로 할인된 가격).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개인의 골방과 교회의 연합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앞에 드러지는 기도의 향연은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의 불씨입니다. 다시오실 신랑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등불 들고 서있는 슬기로운 진부된 교회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2느헤미야52기도」 참여는 기도24365본부 웹사이트(www.prayer24365.org)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010-4192-4365, 070-7417-4366~7



# '다시복음앞에' 총 5천여명 참석 예상

### 사무국, 예상밖 지원자 급증 11월말에 조기 접수 마감 섬김이 7백여명 지원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가 조용하지만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집회 총진행본부인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은 지난 11월말 집회 개막일을 보름 이상 남겨두고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11월 하순으로 다가오면서 등록자수가 하루 100여명을 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마침내 접수 한계치로 설정한 4천명을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사무국은 현재 접수를 중단한 채, 뒤늦게 참가신청을 하



는 분들에게 방문자로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무국측은 그러나 이런 추세로 접수 문의한다면 '방문자'마저도 받을 수 없을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집회기간 중 방문자들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 TV로 집회장면을 시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이번 집회 참석자수가 최대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접수한 참석자들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전쟁하는 주의 군사라는 컨셉으로 10명 단위의 소대와 30

소대를 1대대로 구성하여 편제된다. 이들을 섬기는 섬김이는 총 700여명. 조원 최소 단위는 10명으로 심부장 자격의 소대장으로 섬기는 조장 외에도 주방, 청소, 방송, 문서관리, 진행영역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여 섬길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이번 집회 기간 중 참석자들의 생활과 집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음기도신문 특별판을 현장에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컬러 ID밴드...손가락 2개 여유두고 매세요”

### 군량미 먹고, 군복 티셔츠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를 위한 군사 패션

이번 집회는 참석자 모두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군사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명의 참석자를 한 소대(소그룹)으로 편성하고, 30개의 소대는 한 대대를 이룬다. 한 소대원의 식사와 입출입, 강의실 자리배치 등을 안내하고 섬기는 조장 역할의 소대장과 이들 30개 소대, 즉 대대를 섬기는 대대장이 있다.

또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판매하는 티셔츠는 복음기도동맹 견장이 붙은 군복 스타일로 제작됐다. 또한 매일 하루 세끼의 식사는 군량미라고 부르며 식단이 부족한 관계로 선한목자교회 지상층에 여러 장소에서 무리를 지어 야전식 식사를 하게 된다.

이번 집회참석자들은 3박 4일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진행본부가 컬러 아이디(ID)밴드를 행사기간 내내 손

목에 착용하고, 지정된 소속부대를 기억해야 한다.

12가지 총천연색의 아이디(ID)밴드, 3박4일간 착용해야 이번 집회에서 이 팔찌는 주최회장 출입증과 식권 역할을 한다. 그래서 3박4일간 손목에 착용하고 세수하고 물을 묻혀도 찢어지지 않도록 비닐 코팅으로 제작됐다. 아이디 밴드의 색깔은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등 12개. 각 색상은 한 대대를 의미한다.

이번 집회기간동안 천보산민족기도원이 숙소로 배정된 신 분들은 매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활용가능한 차량이 부족하다. 사무국은 편도 10km 구간의 이 거리를 실어나를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집회 기간동안 차량을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 연락처 : 010-9440-4365

##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받을 자, 키맨을 찾습니다”

### 집회 기간 중 키맨 상담 '부스' 운영 ... 100여명 키맨 참여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에 제한 없이 쓰임받을 자 키맨(Key Man)을 찾습니다.”

은 땅에 임한 기근, 경제 파탄, 종교분쟁, 자연재해, 도덕적 타락 등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땅 끝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창고지기인 키맨을 찾는 상담부스를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기간 중 운영한다고 선교자원은행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JSMIN)가 최근 밝혔다. 키맨이란 부르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영역에서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이 실체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JSMIN은 이에 앞서 이번 연합집회 부스에서 상담역할을 담당할 초기 키맨들을 지난 6일 요셉의 창고로 초청, 다시 한번 키맨으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과 향후 키맨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각 영역별로 이미 세워진 100여명의 증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자리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김용의 선교사는 “키맨은 이 땅의 아픈 현장에 귀를 열고, 눈을 뜬 사람”이라며 “위기의 때마다 주님의 때를 따라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충성스런 키맨의 대열에 모두 참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연합집회 기간 중 지하2층에 설치 운영되는 키맨상담부스에서는 열방 땅끝에서 축복의 통로로 서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단기선교 경험이 있거나 선교현장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 선교적 삶을 상담할 수 있다. ☎ 070-7417-4156~7, 010-2389-4156, jsministry@hanmail.net cafe.naver.com/sministry

## 순회선교단, 28기 목회자 복음학교 훈련생 모집



목회자, 선교사, 사모, 담임전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선교단의 28기 목회자 복음학교가 오는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 열린다. 새로운 복음의 지식을 배우는 학교가 아닌 총체적이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이 학교의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순회선교단 웹사이트(www.wmm119.org)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032-752-4643, 010-6307-4641

『다시복음앞에 주제가「다시복음앞에」

모든 복음기도동맹군들이 삶의 영역에서 매 순간 부르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라우리가여호와께로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그리고 보란 듯이 그를 버리고 떠나 창녀가 된 고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찾아가 다시 사랑을 고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이방을 좇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떠나갈 수 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아내로 맞으시는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주님의 마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깨닫는 호세아의 노래.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주제가 ‘다시복음앞에’는 호세아를 통해 만난 고멜이 바로 우리임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호세아가 되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을 향해 주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증인들이 부르도록 지은 노래이다. 부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돌아갈 만한 상황이어서, 그럴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어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고백이다. 이것은 사실 호세아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노래임을 알게 된다. 이 곡을 작곡한 김정은 사모(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는 그의 삶에 동일한 고백이 있었음을 들려주었다.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뮤지컬을 공부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10년 넘게 해오는 동안 성공도 맛보고, 보람도 있었지만 실상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종교생활로만 그칠 뻔했던 그에게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닌 다

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지금은 남편 김윤중 전도사와 함께 아트리 공동체에 함께 살게 하셨다고. “십자가를 땀뿜던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받아주셨네” 복음을 만난 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소망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복음 안에서 교제하던 지인을 통해 뮤지컬 가스펠의 작곡 참여를 제의받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 또 그는 이번 주제를 지으며 다만 오병이어의 보리떡 하나와 같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주님이 그를 통해 5천명을 먹이실 것을 확신하며 이번 곡을 작곡했다고 말했다. “예수생명 우리는 영생을 얻었네” 최근 집회기간 동안의 체조송도 작곡한 그는 오히려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함께 참석할 수 없어서 자녀와 함께 집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2절을 통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설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아닌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교회가 함께 일어설 것을 믿으며 서 있음을 기억하자고 외친다. 복음기도동맹군들이 각 영역에서 복음을 통해 회복될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 매순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기대한다.

다시 복음 앞에(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Musical score with lyrics in Korean and musical notation.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식의 시작도 다시 복음 앞에서

부르신 곳에서 안식년을 떠나며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된 여러분에게 소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편지와 00까지 방문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랐지만 선하신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나를 데리고 여러 검사를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사람의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무력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희는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 것만큼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에 다른 사람은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 받는 모습이 저 같았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말씀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거듭나라!!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

로 거듭나라!! 거듭나고 싶은 쪽은 나인 것 같은데 이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더라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거듭나는 말씀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문장으로 이해했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공유되고 그 사랑과 마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C.T스터디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대가 지불도 크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현지인들과 예배와 묵상 모임을 통해 전엔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며 회개와 용서를 통해 예배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 저희는 여러 지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다는 예배와 말씀을 한나는 기도로서 섬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항상 성도들은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데 한나가 자매들을 안고 기도하니 자매도 울고 한나도 기도로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지

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었고 열심히 달려온 듯합니다. 여기서 조금 시간을 더 갖고 내년 2월에 안식년을 가질까 했는데 우연히 복음기도동맹에서 주관하는 ‘다시 복음앞에’라는 집회가 12월 13~16일까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또한 아내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다른 이유는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부르심 그것뿐... 그래서 안식의 시작도 ‘다시 복음앞에’에서 시작해야 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일 전에 결정이 된 거라 짐도 정리하고 교회와 사람들과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신 귀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국에서 야다와 한나 선교사

후원자 명단
(2011년 11월 25일 ~ 12월 6일. 가나다 순)
△개인
민용기 박경희 박태일 배용구 유수경 윤석주 이민자 이영미 이흥범 정영훈 지병용 한용희 홍승표 무명X2
△교회 및 단체
국제선교교회 기쁜우리교회
나무와씨앗교회 예수전도단출판부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기사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숙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